

일본 대중문화의 이해

---한류와 일본류, 그리고 아시아류



박진수

○ 한류란 무엇인가?

'~류'란 어떤 특정 집단이 타집단의 생활양식을 받아들여 자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행 현상.
한류란, 한국 이외의 집단(국가, 지역, 혹은 민족 등)이 한국식(한국적) 문화 혹은 한국에서 시작되거나
발신된 여러 형태의 문화를 애호하는 현상.

○ 한류의 역사

- 한사군을 통한 한반도의 생활양식
- 陳寿(233~297?)의 『三国志』(280?)

「魏書烏丸鮮卑東夷傳」(烏丸, 鮮卑, 東夷[夫餘, 高句麗, 東沃沮, 挹婁, 濊, 韓, 倭])

范曄(398~445)의 『後漢書』(432?)

「東夷列傳」(夫餘, 挹婁, 高句麗, 東沃沮, 濊, 三韓, 倭)

- 삼국시대의 한류---고구려, 백제, 신라(일본에 전해진 불교, 유학, 미술, 음악)
- 신라방 / 신라소에서의 신라 풍습
- 고려양(高麗樣)

고려 말기 원나라에서 유행하였던 고려의 풍습. 의복·신발·모자 등의 복식과 만두·떡 등의 음식, 아청(鴉靑 : 검은색을 띤 푸른빛) 등의 기물. 고려만두(高麗饅頭)·고려병(高麗餅).

-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 = 朝鮮聘禮使)
- 조선 유학, 도자기 등



일본의 한류

제1차 한류 붐

드라마(2004) 『겨울 연가』(冬のソナタ) 붐 (2004) → '윤사마'(ヨン様) 붐
『대장금』(宮廷女官チャングムの誓い) 붐 (2005~2006)
J-POP(2005~2010) BoA, 東方神起 등

제2차 한류 붐(2010~2011)

東方神起, 少女時代, KARA 등 K-POP

쇠퇴기(2012~2015) 대통령의 독도 방문, 천황 사죄 요구.

신한류 (2015~2017)

라이프 스타일(성형수술, 얼굴메이크, 요리, 셀카봉...), K-POP

제3차 한류 붐(2017) TWICE, 방탄소년단

제4차 한류 붐(2020~) 영화 <기생충>,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쓰>



일본 한류의 특징



배경:

한국 드라마의 느린 진행과 중고년층 여성들의 1970년대의 향수.
1998년 한국의 일본문화개방 정책으로 일본 문화의 영향, 라이프 스타일의 공통점.
한국의 저작권법. 일본의 위성 방송 체제.
(2001년 신오쿠보역 승객추락사건-이수현 군의 살인성인, 2002년 한일공동월드컵)

영향:

한국에 대한 관심도 증가.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상승.
한국제품 선호도 제고.
한국어 학습 열풍.
한국 여행 붐.

*혐한류.



한류(韓流, Korean wave)의 시작

[‘한류’라는 용어는 1999년 중국의 신문 『북경청년보(北京青年報)』

“한국의 유행(Korean Wave)이 밀려온다”는 말에서 유래.

1999년 대한민국 문화관광부에서 대중음악의 해외 홍보를 위해 <韓流-Song from Korea>라는 이름으로 음반을 제작.]

1997년 중국--- CCTV(中国中央电视台)에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2000년 대만--- 클론 <초련> <빙빙빙>

2003년 일본--- 드라마 <겨울연가>

➔한국어 학습의 확대, 한국 음식에 관심, 한국 브랜드 이미지 상승.

* 한국의 日流, 일본의 華流, 일본의 台流, 대만의 哈日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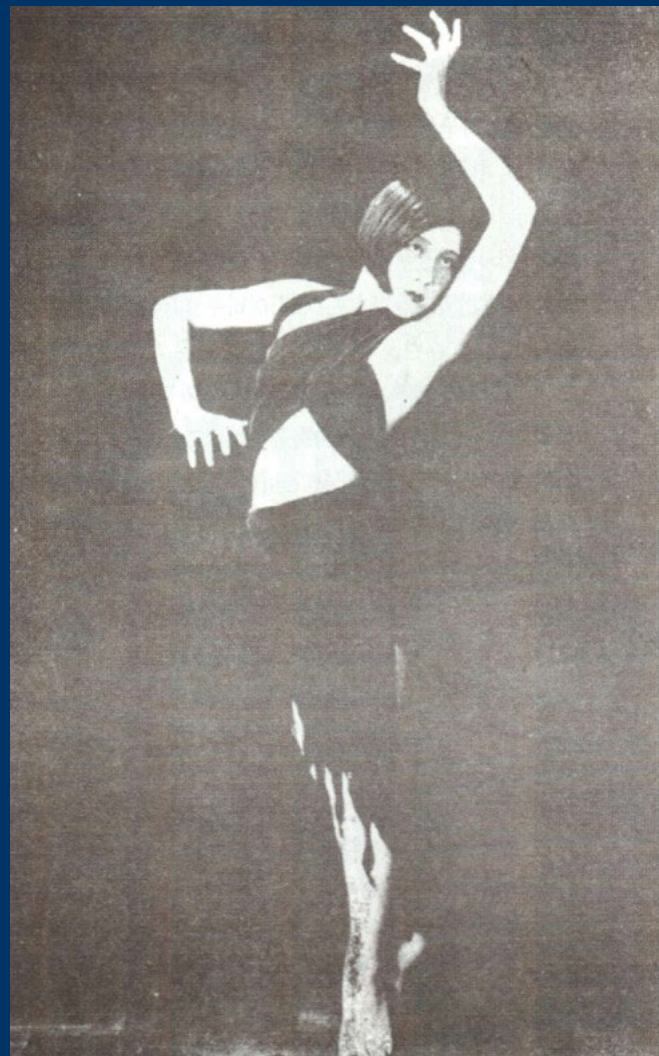
▶ <춘향전>은 한국 민족이 전승해온 고유의 설화로, 판소리·소설·연극·영화 등, 다양한 장르로 향수되어 왔으며,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불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의 언어로 번역되어 해외에 소개되었다.



▶ 역사적으로 한국 문학이 해외에 최초로 번역 소개된 것은 1882년 근대 일본에서였고, 이후 한국 문화 붐의 중심에는 항상 <춘향전>이 있었다. <춘향전>이 최초로 번역 소개된 것은 『오사카마이니치신문(大阪毎日新聞)』(1882.6.25~7.23)에 연재된 나카라이 도스이(半井桃水, 1861~1926)의 『계림정화 춘향전(鷄林情話春香傳)』인데, 일본에서는 이후 1923년에 무성영화로 제작되었고, 1938년에는 신극(新劇)으로 공연되었으며, 전후에는 오페라로 제작되어 한류의 기원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 최승희(崔承喜, 1911~1967)
의 무극(舞劇) <춘향전>이 베
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텐진
(天津) 등 중국의 주요 도시에
서 순회 공연.





[http://news.naver.com/main/read.nhn?
mode=LPOD&mid=tvh&oid=057&aid=00
00182495](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182495)



트로트와 엔카

'고가 멜로디'의 출현
 고가 마사오(古賀政男, 1904~78)
 후지야마 이치로(藤山一郎, 1911~93) 콤비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酒は涙か溜息か)>(1931)



작사: 다카하시 기쿠타로
 작곡: 고가 마사오
 노래: 후지야마 이치로

술은 눈물일가 한숨이랄가
 노래: 채규엽

- 1 酒は涙か溜息か
心のうさの捨てどころ
- 2 遠いえにしのかの人に
夜毎の夢の切なさよ
- 3 酒は涙か溜息か
かなしい恋の捨てどころ
- 4 忘れた筈のかの人に
のこる心をなんとかしよう

술이야 눈물일가 한숨이란가
 이마음의답々을 버릴곳장이

오래인그넷적에 그사람으로
 밤이면은꿈에서 간절했세라

이술은눈물이나 긴한숨이나
 구쉴흐다사랑의 버릴곳이여

그억도사라진듯 그이로하여
 못닛갯단마음을 엇지면줄가



古賀政男音楽博物館
KOGA MASAO MUSEUM OF MUSIC

← この先20m
右手正面



트로트와 한류

○ 문일석(文一石, ?~?) 작사 손목인(孫牧仁, 1913~99) 작곡
이난영(李蘭影, 1916~65) 노래 <목포의 눈물>(1935)
→ <이별의 뱃노래(別れの船歌)>(1936)



문일석(?~?)
목포 출신의 작사
가. 본명 윤재희.

손목인(1913~99)
트로트 양식의 대표 작곡가.
구가야마 아키라(久我山明)
로 일본에서도 활동. 1930
년~36년 유학 중 작곡활동.
수 많은 히트곡을 남김.



이난영(1916~65) 본명 이옥레.
오카 란코(岡蘭子). 1933년 데뷔.
<목포의 눈물> 이후 1930년대
~50년대 한국의 대표적 가수.

제1회 「향토찬가」 당선작품
지방新民요



Okeh
PANPHONIC
RECORD



一 제 오
込吹氣電一 罎 판
드 - 코 레

1795 - A

三、 김흔밤 쪼각달은 흘러가는데

엇지라 넷傷處가 새로워진가

못오는 남이면 이마음도 보낼것을

港口의 맺는節介 木浦의 사랑

x

二、 삼배년원안풍은 露積峰밋헤

任자최 宛然하다 애담흔 情調

儒達山 바람도 榮山江을안으니

任그려 우는마음 木浦의 노래

Okeh
PANPHONIC
RECORD



一 제 오
込吹氣電一 罎 판
드 - 코 레

1795 - A



第一回「郷土讚歌」當選作品

(文 石 作詩)
(牧 人 作曲)

木浦의 눈물

獨唱

李 蘭 影

作泰・오케1패미리뮤직

一、 사공의 뱃노래 감을거리며

삼학도 三鶴島 파도김히 숨어드는새

埠頭의 새악씨 아롱저진 옷자락

離別의 눈물이나 木浦의 이름

목포의 눈물(1935)
(문일석 작, 손목인 작곡,
이난영 노래)

沙工의 뱃노래 감을거리며
三鶴島 파도깊히 숨어드는 때
埠頭의 새악씨 아롱저진 옷자락
離別의 눈물이나 木浦의서름

三栢淵願安風은 露積峰밋헤
任자최 宛然하다 애닦흔 情調
儒達山 바람도 榮山江을 안으니
任그려 우는마음 木浦의노래

김흔밤 쪼각달은 흘러가는데
엇지타 냇傷處가 새로워진가
못오는 님이면 이마음도 보낼 것을
港口의 맺는 節介 木浦의사랑

(오케-1795-A)

이별의 뱃노래(別れの船唄, 1936)
(시마다 긴야 작사, 스기타 료조 편곡,
오카란코 노래)

波路遙か 船は去り
君が船歌 消えてゆく
涙ためて 見送る今宵
こころ残りな 月明り

思い乱れて 悲しいのよ
船は帰らぬ 海のはて
別れあえば いつまた逢える
夢ははかない うたかたよ

せめて尽きぬ 思い出に
君が船歌 口ずさみ
月に流れる 港の夜は
一途ごろの なみだ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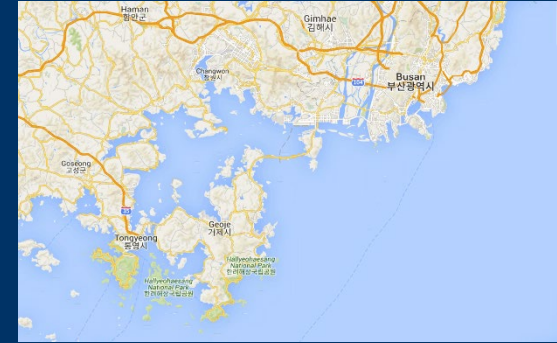
(テイチュ 50344)



시마다 긴야(島田馨也,
1909~78) 작사가



역사적 맥락에서 인간적 정감으로



김성술 작사 황선우 작곡(黃善友)의 <돌아와요 충무항에> 김해일 노래 (1970)

황선우 개사 <돌아와요 해운대에> 조용필(趙容弼) 노래 (1972)

황선우 2차 개사 <돌아와요 부산항에> 조용필 노래 (1972)

미요시 레이지(三佳令二, 1928~2009)의 일본어 번역
<부산항에 돌아오라> (釜山港へ帰れ),
아쓰미 지로(渥美二郎, 1952~) 노래 (1982)



돌아와요 충무항에 (1970)

1. 꽃피는 미륵산엔 봄이 왔건만
 님 떠난 충무항은 갈매기만 슬피 우네
 세병관 등근기둥 기대어 서서
 목메어 불러봐도 소식 없는 그 사람
 돌아와요 충무항에 야속한 내 님아
2. 무학새 슬피우는 한산도 달밤에
 통통배 줄을 지어 웃음꽃에 잘도 가네
 무정한 부산배는 님 실어가고
 소리쳐 불러봐도 간 곳 없는 그 사람
 돌아와요 충무항에 야속한 내 님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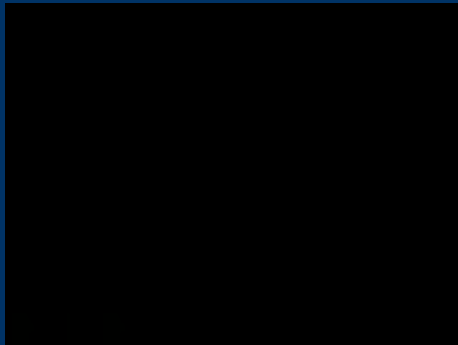
돌아와요 해운대에(1972)

1.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님 떠난 부산항은 갈매기만 슬피 우네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목메어 불러봐도 말없는 그 사람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님아
2. 해저문 해운대에 달은 떴는데
 백사장 해변가에 파도만 밀려 오네
 쌍고동 울어주는 연락선마다
 소리쳐 불러봐도 말없는 그 사람
 돌아와요 부산항에 보고픈 내 님아

돌아와요 부산항에 (1976)

꽃피는 동백 섬에 봄이 왔건만
형제 떠난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피 우네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목메어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형제여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가고파 목이 메어 부르던 이 거리는
그리워서 헤매이던 긴긴날의 꿈이었지
언제나 말이 없는 저 물결들도
부딪혀 슬퍼하며 가는 길을 막았었지
돌아왔다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釜山港へ帰れ (1982)

椿咲く春なのに、あなたは帰らない
たたずむ釜山港に、涙の雨が降る
熱いその胸に顔うずめて
もう一度幸せ噛みしめたいのよ
トラワヨ プサンハンへ、逢いたいあなた

行きたくてたまらない、あなたのいる街へ
さまよう釜山港は、汽笛が胸を突く
きっと伝えてよ、かもめさん、
今も信じて耐えてる私を
トラワヨ プサンハンへ、逢いたいあなた



언어적 조탁의 초월적 의미

길옥윤(吉屋潤, 요시야 준, 1927~95)
본명 최치정(崔致楨)의 활동
재즈와 가요곡 사이에서, 불후의 명곡 <이별>(1969)



이별



離別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때로는 보고파지겠지 둥근 달을 쳐다보면은
그날 밤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지난날을 후회할거야

산을 넘고 멀리멀리 헤어졌건만
바다 건너 두 마음은 떨어졌지만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時には思い出すでしょう 冷たい人だけど
あんなに愛した思い出を 忘れはしないでしよう
青い月を見上げ 一人過ごす夜は
誓った言葉を繰り返し 逢いたくなるでしょう

山越え遠くに別れても 海の彼方遙か離れても
時には思い出すでしょう 冷たい人だけど
あんなに愛した思い出を 忘れはしないでしよう

あなたの噂を風が 運んで来る夜は
寄せては返す淋しさに 心を揺らすでしょう
流れゆく月日が すべてを変えるでしょう
たとえ二人の炎が 燃えつづけていても

한류에 대한 논의에서
경제적 측면, 국가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국(一國)주의적 역사관과
자국중심적 교육, 문화 내셔널리즘
에서 탈피해야 한다.

단안적 시각 --> 복안적 시각
지역적 관점 --> 글로벌 관점

K-POP과 J-POP
.....C-POP? A-POP.....

➔ 타자(他者)의 수용,易地사지(易地思之)